이정식 "노사, 경제주체로 사회적 역할 다하도록 여건 조성"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찾아 현안 경청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당부
경영계, 중대재해법 규정 개정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에 이어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영계는 모호한 중대재해법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경총회관에서 이정식 장관을 만나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법 보완 움직임에 노동계가 우려를 나타낸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이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한 부분은 묵과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규정에 담긴 안전·보건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에 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국정과제 등 고용과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이 장관에게 요청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하루 근로 8시간,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해 민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전날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정부도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밀키트, 동일메뉴라도 영양소 차이 최대 6.7배

소비자시민모임 25개 제품 시험·평가
나트륨·포화지방 1일 기준치 초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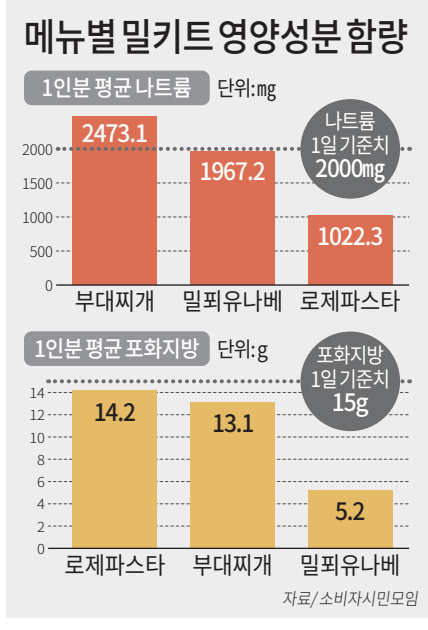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며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하루 기준치를 초과하고 제품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17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10개), 밀푀유나베(8개), 로제파스타(7개) 등 25개 밀키트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로 구성돼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는 1882억원인데, 2025년엔 7253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험 결과, 밀키트 25개 제품의 1인분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의 최저 37.3%(745.7㎎, 마이셰프 쉬림프로제파스타)~최대 159.4%(3188.5㎎, 피코크 오뎅식당 부대찌개 밀키트)로 부대찌개 7개, 밀푀유나베 4개 등 11개 제품은 1인분의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 밀키트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가 123.7%(2473.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밀푀유나베(98.4%), 로제파스타(51.1%)로 나타나 나트륨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제품의 1인분 포화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최저 10.7%(1.6g, 마이셰프 밀푀유나베) ~ 최대 165.3%(24.8g, 홈스토랑 바이 애슐리 쉬림프 비스크 로제 파스타)로 이 중 부대찌개 4개, 로제파스타 2개 등 6개 제품은 1인분 포화지방이 1일 기준치를 넘었다. 메뉴별로 로제파스타와 부대찌개의 경우 한 끼 식사로 하루 기준치에 가까운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

열량은 1인분 하루 섭취 참고량(2000㎉)의 최저 14.7%(심플리쿡 밀푀유나베)에서 최대 45.4%(공곰 옛날식 부대찌개)로 최대 3배 차이가 났고, 메뉴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메뉴라도 제품에 따라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주요 영양소 함량 차이가 컸고,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의 경우 제품별로 최대 6.7배까지 차이가 났다. 또, 25개 제품 중 6개만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했다.

5개 제품은 전체 또는 구성물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하거나, 표시상의 구성물이 실제 제품에 없는 등 표시와 실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25개 제품 중 12개 제품의 올해 3월 가격은 4개월 전인 전년 11월 대비 5.9%~3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증가,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훈련 한번에 식대 수십만원 청구
초급간부 의욕 꺾는 육군 '셈법'

약 20일 훈련에 22만원 식대
불만제품 '전투식량 S형' 제공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땀 흘리는 초급간부들. 그들에게 군 당국이 수십만원의 식대를 청구해 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지급된 일부 전투식량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부터 보급이 중단될 '전투식량 S형'이라 '군간부들에게 돈을 받고 재고처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불만쌓인 보급품, 간부입에 털어놓고 재고처리?

17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 응한 육군 A 간부는 "육군 과학화훈련 전투단(KCTC)을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참가했는데 약 22만원의 식대가 청구됐다"면서 "전투식량 S형은 기존 전투식량 2형의 민수형 제품을 도입한 것이지만, 이물질 검출과 식감문제로 장병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품목"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기간 훈련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부과된 식비는 22만52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끼 3330원과 4000원으로 책정된 조식과 중식을 각각 15끼, 3470원으로 책정된 석식 16끼와 군납가 3670원인 전투식량 S형이 15끼가 제공됐다. 그 중 '전투식량 S형'은 숙영훈련 5일간 제공됐다.

'전투식량 S형'보급과 관련된 국민심문고 민원에 대해 2019년 3월 27일 군 당국은 "야외훈련간 반합과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급식을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육군에서는 전투식량 S형 5종을 보급해 뜨거운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군장병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는 군사커뮤니티 '밀덕잡담'의 전예준 대표는 전투식량 S형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전 대표는 "귀뚜라미 등 이물질이 검출되고 식감도 동결건조 방식의 내용물에 물을 부어먹는 기존 전투식량 2형보다 좋지 않다는 언론보도에도 군 당국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고 말했다.

◆최저가입찰 놀음… 책임과 부담은 일선 간부에게

국군의 고질병인 '보급품 최저가 입찰'로 발생한 불만제품을 군간부들의 입에 털어넣고 재고처리를 한 셈이다. '전투식량 S형'은 동결건조 방식의 전투식량 2형에 비해 보존기간이 짧은 단점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군간부들은 "훈련 중에 보급되는 개념으로 먹는 전투식량 소모비용을 군간부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런식이라면 차량 유류비, 탄약비, 기타 훈련준비 교보재 비용도 전부 떠 맡아야 할 판이다. 이런 푸대접을 하면서도 초급간부 지원율이 낮다는 우는 소리를 할 것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군부실 급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급식비 실비를 간부에게 부담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간부가 '영내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식사를 한 것은 문제지만, 이를 부풀려 지적한 감사원의 감사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민간기업도 출장 및 파견에 대한 식비를 지원하는데 정부가 이 비용을 간부에게 한정해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다. 미국을 비롯한 모병제 국가도 훈련 및 작전기간 보급되는 전투식량에 식비를 부가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지원된 식비는 9만원 남짓이었다.

때문에 '21세기 국군이 망국으로 치닫던 조선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센 비난도 나온다 조선은 잡역과 병역(지방 동원의 잡색군)을 부가하면서도 식비와 기타비용을 백성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아열대성 '푸른아시아실잠자리' 파주서 발견

기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북상

아열대성 잠자리로 알려진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도 파주까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던 잠자리가 한반도 북부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분포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관측을 한 결과 열대·아열대성 곤충인 푸른아시아실잠자리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됐고 17일 밝혔다.

푸른아시아실잠자리는 주로 아프리카, 중동 등에 서식하는 열대·아열대성 곤충으로 가슴 옆면과 꼬리의 여덟 번째 마디가 푸른색을 띤다. 200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다.

/세종=원승일 기자